



5·18 묘지에 걸린 예술만장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 전국 각지의 작가 30명이 참가해 작업한 예술만장이 내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폐교, 주민 친화공간으로

도교육청, 2024년까지 쉼터·농산어촌 유학 지원시설 등

전남지역 폐교 34곳이 오는 2024년까지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6일 도교육청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의 전면적인 폐교 활용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각 또는 대부업 의존하던 기존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꾀한다.

교육청은 우선, 오는 2024년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34곳의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11곳에는 16억원을 투자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감쉼터를 만들고, 8곳에는 12억원을 들여 부모와 함께하

는 학생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8곳의 폐교에는 12억원을 투입해 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7곳에는 10억원을 들여 전남농산어촌유학 지원시설 등 마을공동체 발전 거점을 구축기로 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였으나,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폐교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 정서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아파트공동체 회복 '찾아가는 설명회'

내달 11일까지 신규 아파트 위주

광주 동구는 도시개발·재개발 등으로 아파트 주거문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파트공동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주거 생태계 속 이웃 간 단절의 가속화 속에 아파트공동체를 통한 여러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사업 지원 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즉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불법주정차, 쓰레기 분리배출 등과 같은 갖가지 문제들을 이웃 간 대화와 타협 등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으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는 취

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1일 푸른길 두산위브2차, 백화아파트를 시작으로 25일 그랜트센트럴 등 관내 2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마을 공동체와 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 ▲아파트공동체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등 입주민들이 아파트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설명회 참석자는 입주민 10여 명으로 제한하고, 설명회를 갖는 아파트는 '2021 동구 시작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연계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점검

10월까지 발코니형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월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발코니 형태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 1431곳 중 노후하고 휴업과 같은 타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150곳을 선정해 표본조사방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와 난간·지지대 안전여부, 용접·부식상태 등을 점검 확인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체점검 정기적 시행, 타용도 사용 금지 및 휴·폐업 시 발코니형 비상구의 폐쇄·철거 등을 권고하고, 사고발생 위험요소도 제거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구성

광주 북구, 주민 주도 복지 실천

광주시 북구가 27일 북구문화센터에서 '2021년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발대식에서는 허숙민 한국지역복지연구소장의 '마을복지의 이해와 방향'이라는 강연이 이뤄지며 마을복지의 중요성과 주민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북구는 올해 두암3동, 삼각동, 건국동, 양산동 등 4곳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해 마을복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노태우 장남' 잦은 광주행 "진정성 있는가" 설왕설래

노재현씨, 총장로서 5·18 연극 관람... 시민단체 "부친 회고록 역사 왜곡 사과·수정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54)씨의 광주 방문이 잦아지자, 5월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노씨 부자의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와 후속 조치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두환과 함께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오는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한 사과와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인 노재현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 광주 아트홀을 방문,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극인 '어느 봄날의 약속'을 관람했다. 이번 방문은 노씨가 지난 4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과 약속으로 이뤄졌다.

연극은 이지현 씨가 총감독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의 마지막 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연출한 작품이다. 이 씨는 110분 가량의 공연 뒤 노씨를 무대로 불러 광주 방문 소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관람객들의 항의에 이뤄지지 못했다.

관람객들은 "아버지 노태우씨 사죄가 먼저다", "다시는 광주에 오지 말라"며 거세게 목소리를 높였다.

노씨는 "본의 아니게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공연장을 떠났다.



노재현(맨 오른쪽)씨가 광주시 동구 총장로 광주 아트홀에서 5·18 연극 '어느 봄날의 약속'을 관람한 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연장 밖에서도 노씨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노씨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5월 단체는 '보여주기식'이라며 노씨의 방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노씨가 5월 당사자들과의 만남 대신, 광주를 찾아 '사과한다'는 뜻만을 내비치는 것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씨는 그동안 수 차례 광주를 방문하면서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는 만나지 않는 등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

특히 5월 단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을 "유언비어 때문"이라고 적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수정·삭제 등 5월 광주를 폄하하는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훈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은 "노재현씨의 사과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노태우씨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 없이 광주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정기예탁금특판

1년 2.0% (200억한도)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